

등록금 진통 진정국면

오늘, 총장면담 통해 의견차 좁힐 듯

92학년도 등록금 책정 문제가 지난28일 학교측의 일방고지 이후 수원캠퍼스 학생들이 서울캠퍼스 본관을 점거농성 하는등 사태가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총학생회와 총장과의 면담이 있어 이번 주 종료로 해결의 기미가 보일 조짐이다.

서울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지난1일 이후 3천5백여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제2차 비상학생총회를 열어 총학의 인상인인 5.4% 인상율의 등록금을 총학주최에 납부키로 결의 하였다.

지난 17일 현재 총학주최로 납부한 학생은 1천2백여명으로 알려졌으며 학교측은 총학납부등록금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총학은 명단은 넘겨줄수 있으나 구좌에 납부된 등록금이전은 불가능하다며 학교측과 맞서고 있다.

그동안 학교와 학생간의 협상은 지난16일 교수협의회실에서 실무자 협상이 있었으며 교육복지 환경개선, 성적장학 제도개선, 92년 교수채용인원 인상교수제외 20명이상 등의 안건에서는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인건비 비

율의 2%하향조정 병원전입금 90%, 신입생 입학금 동결등의 사안에 있어서는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총학은 국고보조금 확충을 위한 공동 합의서 채택, 재단공개등은 부총장과의 협상을

통해 총장과 결론적 협상을 요구 하고 있다.

수원캠퍼스의 경우 학교측이 지난11일 교육부에 미등록자에 대한 선처를 요구해 등록기간을 16~17일로 특별연기 공고를 하였으나 총학은 13일 비상총회를

교직이수자 교생실습 지난 6일부터 4주간



▲지난8일 총장 면담 요구중 교직원과 마찰하는 모습.

92학년 교육실습이 지난 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4주간 실시된다.

대상학생은 양캠퍼스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으로 14개 시도 1백 73개교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실습대상자는 서울 20개학과 1백99명, 수원 18개학과 1백78명, 사범대 2개학과 89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총 4백66명이다.

각 단대별 실습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서울캠퍼스>
▲문리대=90명 ▲가정대=10명
▲정경대=16명 ▲음대=35명 ▲체대=39명 ▲의대=9명 ▲사범대=89명

<수원캠퍼스>
▲외대=46명 ▲사회대=9명 ▲자연대=23명 ▲산림대=32명 ▲공대=4명 ▲체과대=64명

지난해 졸업생 취업률 크게 증가

서울 84.7% 수원80.6%로 10%이상 증가

양 캠퍼스 학생처는 91학년도 졸업자 취업현황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지난 2월28일 현재 졸업생 총3천8백2명중 81%인 3천1백44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캠퍼스별로 분류했을 때 서울캠퍼스 졸업생 총1천9백61명중 1천6백61명이 취업해 전체 취업율은 84.7%로 나타났으며 수원캠퍼스는 졸업생 총 1천8백41명중 1천4백83명으로 80.6%의 취업율을 보였다.

순수취업율은 서울캠퍼스가 67.8%, 수원캠퍼스가 65.5%로 전년보다 10%이상 향상된것으로 나타났다.

17주기 이수병선생추모제 열려 지난 8일 서울 노천극장서

제17주기 이수병선생 추모제가 서울캠퍼스 노천극장에서 지난 8일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민주동맹회, 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렸다.

이번 추모제에는 각계각층의 초청인사 50여명과 학생 2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수병선생 약력보고, 유족인사, 기념강연, 교내행진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수병 선생 추모제는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주도로 대내외적인 홍보, 계획을 한 달전부터 준비하였으나 시기상으로 등록금 투쟁과 맞물려 일반학생들의 행사참여를 유도해내지 못했고 수원캠퍼스와의 연대가 안되는 등 지난해에 비해 규모면에서 크게 축소된 진행상의 아쉬움을 남겼다.

열고 교육재정 확보와 등록금협상요구가 관철될때까지 중간고사와 수업 거부를 결의하고 14일부터 서울캠퍼스 본관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17일 밤9시 학생측에서는 부총학생회장, 대책위원 및 정책위원 1인이 참석하고 학교측에서 기획실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총6인이 모인자리에서 총장과의 협상시 점거농성을 풀고, 집기를 제자리에 복귀시키며 행정업무가 정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는 조건으로 총장과의 협상을 갖기로 하였으며, 학교측과 총학생회가 가지고 있는 등록자 명단을 교환해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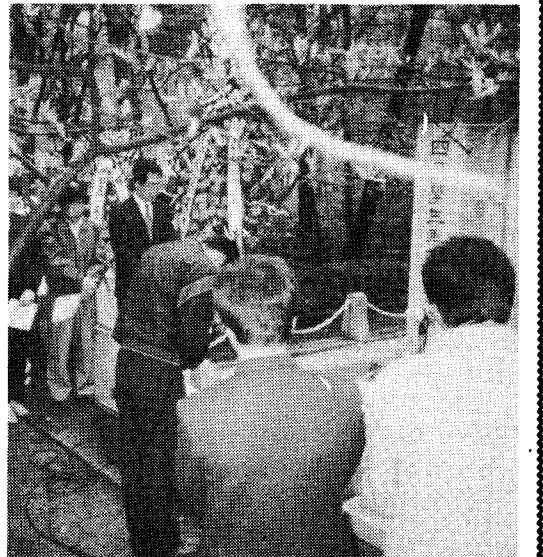
4·19 기념행사 거행

제32회 4·19 기념식이 지난 18일 오전11시 4·19 기념탑에서 거행되었다.

이번 기념식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노동조합, 민주동맹회가 주최가 되어 권영환 노조 위원장 사회로 진행되었다.

열사의 뜻을 기리며

본관앞 숲속에 자리한 4·19 기념비.
4·19를 떠올리며 찾아온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날의 함성을 전해 주리라.
<지난 18일 오전11시 4·19 기념식 행사 장면>
(이강숙 기자)



94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확정 대학별고사 지방계열별로 1과목씩 치르기로

본교 입시관리 위원회는 94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확정된 입시요강은 본교사의 실시여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반영비율 등을 학교당국의 자율에 맡기는 등 대학의 선발 자율권을 학교의 특성에 맞게 대폭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본교에서 94학년도부터 치르게되는 입시에서는 내신성적,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대학별고사 성적 등 3가지를 보게된다.

한편 대학별 고사는 ①일반대학 인문계 학과-영어 ②일반대학 자연계 학과-수학(단, 의, 한, 치, 약대-영어) ③예체능계학과(사범대 포함)-실기고사로 대체 ④사범대학 영어교육학과-영어로 지방계열학과에 따라 한과목씩만 치르게 된다.

일반대학 및 예·체능학과 반영 비율은 다음과 같다.

△일반대학: 내신40%, 대학수학능력시험40%, 대학별고사20%, 면접-합격자부 자료로만 활용

△예체능계: 내신성적(음악40%, 미술40%, 체육40%), 대학수학능력시험(음악10%, 미술30%, 체육20%) 대학별고사(음악50%, 미술30%, 체육40%), ※실기고사로 대체) 면접고사-합격자·부자포만 활용 △일반대학(영어교육과): 내신40%, 수학능력시험30%, 대학별고사20%, 면접고사5%,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5%

△내신40%, 수학능력시험20%, 대학별고사30% (실기고사로대체), 면접고사5%,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5%

수원캠퍼스 중앙도서관공사 낙찰 입찰가 60억원, 신원 종합개발에

수원캠퍼스 제3차 도서관입찰이 총일공업과 신원종합개발 3개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지난16일 입찰가 60억원으로 '신원종합개발'에 낙찰되었다.

학교당국은 지난 3월18일 2차 입찰시 총일공업만이 참석해 참가업체 미달로 입찰이 유찰되자 참가업체 등급기준을 200위 까지 낮춰 신문공고를 내 지난 4월7일 현장설명회를 가졌다.

낙찰에 따라 계약은 다음주 체결 예정이며 계약체결후 한달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공사를 실시하여 공사개시일로부터 18개월 동안 내·외장 마감공사를 하게된다.

한편 이날 낙찰된 수원캠퍼스 중앙도서관 공사에는 지난해 학교와의 합의에 의해 개강이전까지 입찰을 마무리하고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1,2차 입찰이

시공업체와의 입찰가 차이와 입찰업체 미달등으로 공사의 시작이 계속 미루어져 왔었다.

서울복지장학금 지급 학생처, 21일까지

서울캠퍼스 학생처는 복지장학해당학생에게 장학금을 지난1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지급한다. 이번 92학년도 복지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도장, 학생증, 고지서 또는 영수증을 가지고 복지장학부서에서 장학금을 지급받으면 된다.

공대 열람실 이전

공과대학 제1열람실(96석)이 지난3월중순 학생회관 열람실로 이전되어 오는 5월말경 정기간행물실로 새로 보강될 예정이다.

구체적 실현방안 논의 필요

▼ 지난 88년 9월 문교부의 대학등록금 자율화 조치이후 등록금은 대학 자율에 의해 결정되어지므로 등록금협상이 신학기의 의제적인 관건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대학이 학사일수를 자율적으로 진행하여 학원의 자율화 시키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협상은 내용과 방법면에서 별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 등록금협상이 처음으로 실시된 지난 89년, 학교측은 물가상승, 교직원 임금인상, 과다한 건설경비, 신입교원 채용 등을 내세우며 등록금인상의 불가피성을 나타냈으며, 학생측은 "학생들과 충분한 협의없이 단독적으로 인상을 확정하는 것은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학생측은 재단의 전입금 확충, 재단이 부담해야 할 부분은 재단이 부담해야한다는 등의 요구안을 내세우고 협상에 임했다. 이후 학생측은 학원자주화 투쟁으로 확산해 대학자치협의회 건설과 민주적·공개적 학사행정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이 89년도에 이루어진 등록금협상의 사항들이라고 명시하지않는다면 지금의 상황과 별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할것이다. 등록금협상 방법에 있어서 학생측은 어떠한 사건이 발발한 후에야 뒤늦게 대처하는 사전준비의 미흡성을 보였으며 본관점거등 최악의 방법이 반복되었다. 또한 서울·수원 양캠퍼스의 인상이 동일하지 못하고 서로의 요구안들이 크게 달

라 연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난 14일 서울캠퍼스 본관을 점거한 수원 학생들과의 연대도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 등록금협상이 내용과 방법들이 89년도 상황과 별다른 진전을 보이고 있지않는것은 매년 등록금협상과정에서 원론적인 내용들에 있어 원칙적 합의만 보았을 뿐, 그 시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못하고 학생측 대표들이 학년마다 변경되어 등록금협상에 대한 경험들이 축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등록금협상이 인상을만을 가지고 논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원론적인 문제들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 논의할 때인 것 같다.

66

4.19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66



우리는 우리들의 끈없는 사랑!
조국의 구원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일체의 지성과 정의의 이름으로 싸워
우리의 학원 그 기를 높이 세웠다.
그리고 한 벼를 잃었으니
그 이름은 李基泰
광명이며 영원히 그의 죽음에 있으라

- 四·一九 학생혁명 기념탑비문